다시 푸는 경서

진심직설(眞心直說) ⑱

11. 진심을 밝히는 정법과 보조방법(眞心正助)

或曰如前息妄 眞心現前
혹왈여전식망 진심현전
且如妄未息時 但只歇妄做無心功夫
차여망미식시 단지헐망주무심공부
更有別法可對治諸妄耶
갱유별법가대치제망야

물었다. "앞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망심을 쉬면 진심이 나타난다 하시니 만일 망심을 쉬지 못했을 때는 다만 망심이 쉬고 무심해지는 공부만을 해야합니까, 아니면 모든 망심을 다스리는 특별한 법이 있습니까."

曰正助不同也 以無心息妄爲正
왈정조부동야 이무심식망위정
以習衆善爲助 譬如明鏡 爲塵所覆
이습중선위조 비여명경 위진소복
雖以手力揩試 要須妙藥磨瑩 光始
수이수력개식 요수묘약마영 광시
現也 塵垢煩惱也 手力無心功也
현야 진구번뇌야 수력무심공야
磨藥衆善也 鏡光眞心也
마약중선야 경광진심야

대답했다. "정법과 보조방법은 다르다. 무심으로 망심을 쉬는 것이 정법이고, 온갖 선(善)을 익히는 것은 보조 방법이 된다. 비유하자면 밝은 거울이 먼지에 덮였다면 손으로 닦을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묘한 약으로 문질러야 비로소 광채가 나타나는 것과 같다. 먼지나 때는 번뇌이고, 손으로 닦는 것은 마음 공부이다. 약으로 닦는 것은 온갖 선행을 하는 것이고, 거울의 밝은 광채는 바로 진심이다.

무심으로 망심 쉬는 것이 정법이고 온갖 선을 익히는 것은 보조방법

起信論云 復次信成就發心者
기신론운 부차신성취발심자
發何等心 略有三種 云何爲三
발하등심 약유삼종 운하위삼
一者眞心 正念眞如法故
일자진심 정념진여법고
二者深心 集一切
이자심심 집일체
善行故 三者大悲心
선행고 삼자대비심
欲拔一切衆生苦故
욕발일체중생고고

〈기신론〉에 말하기를 '신성취발심(信成就發心: 해행발심(解行發心), 증발심(證發心)과 더불어 세 가지 발심 중의 하나)을 한 자는 어떤 마음을 내는 것일까. 대략 세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 세 가지인가. 첫째는 진심이니, 이는 진여의 법을 바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심심(深心)이니, 이는 일체의 선행을 모으기 때문이고, 셋째는 대비심이니, 이는 모든 중생의 고통을 구제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하였다."

問曰上說法界一相 佛體無二
문왈상설법계일상 불체무이
何故不唯念眞如 復假求學諸善之行
하고불유염진여 부가구학제선지행

물었다. "위에서 법계(法界)는 일상(一相)이고, 부처의 체성(體性)은 둘이 아니다고 했는데 무슨 까닭에 진여만 생각하는데에 만족하지 않고 온갖 선행을 구하고 배워야 합니까."

答曰譬如大摩尼寶 體性明淨
답왈비여대마니보 체성명정
而有鑛穢之垢 若人雖念寶性
이유광예지구 약인수념보성
不以方便 種種摩治 終無得淨
불이방편 종종마치 종무득정
如是衆生 眞如之法 體性空淨
여시중생 진여지법 체성공정
而有無量煩惱染垢 若人雖念眞如
이유무량번뇌염구 약인수념진여
不以方便 種種熏習 亦無得淨
불이방편 종종훈습 역무득정
以垢無量 偏一切法
이구무량 변일체법

대답했다. "비유컨대, 큰 마니보주(摩尼寶珠)의 체성(體性)은 맑고 깨끗하지만 광석의 더러운 때가 있으니, 만일 사람이 (맑고 깨끗한) 보주(寶珠)의 성품을 생각하더라도 갖가지 방편으로써 갈고 닦지 않으면 끝내 깨끗한 보배를 얻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중생들의 진여의 법도 원래 체성은 공하고 깨끗하지만 한량없는 더러운 때가 끼었으니, 만약 사람이 진여를 생각하더라도 갖가지 방편으로써 익히고 닦지 않으면 역시 깨끗함을 얻을 수 없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스님 수행한담

"일이 곧 수행이니

금봉스님 〈태고종 승정〉

온 곳도 모르고 갈 곳도 몰라(不知來處何處去) / 마음 마음 유랑한 지 어느 덧 80년(念念流浪卽傘壽), / 본래 주인공은 어디에 있는가(本來主人在何處) / 여래는 옛부터 그 자리에 있었네(誰名如來古不動).
(98년 2월에 금봉스님이 지은 선시)

금강산 유점사 대교과정의 학인은 1백여명에 달했습니다. 전체 사찰 대중은 2백여명에 이를 정도로 큰 절이었지요. 1백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은 무척이나 컸고, 천장에는 학이 나르고 용이 용트림을 하고, 금붕어가 연못을 헤엄치고, 매화 꽃이 만발한 그림이 장엄되어 있었지요.

일제하 31본산 시대에 유점사는 산내, 산외 말사 60개를 관장했던 금강산 제일의 가람이었습니다. 하지만 1951년 6.25동란의 와중에서 절 전체가 소실되었습니다. 당시 유점사는 묘향산 보현사와 안변 석왕사와 함께 대표적인 수행처였습니다.

저는 10세 때 동진출가했지만 본격적인 수행에 뜻을 두게 된 계기는 15세 때 아버님이 1년간 병환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시면서 인생의 무상을 실감하면서 부터입니다. 작은 아버님이 북한산 진관사 신도 이셨는데, 진관사 성봉 노스님께서 저를 귀여워해주시면 "스님 노릇하면 좋겠다"고 한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은사는 진관사의 서명당(西溟堂) 월현(月泫) 스님이시고, 법사는 서울 백련사의 금허당(錦虛堂) 스님 이셨어요. 은사이신 서명당 스님은 92세 때까지 진관사에서 평생 울력을 하며 불사에 매진한 분이셨어요. 법사 스님은 서울 홍은동 백련사에 주석하셨는데, 저는 이곳에서 사집을 마쳤습니다.

이어 철원 심원사에서 다시 사교를 배우고, 유점사에서 대교를 마쳤습니다. 선교양종을 아우르는 통불교의 전통이 있었던 유점사 강원에서는 일우 스님께 공부를 배웠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의 한암스님, 개운사 대운암의 박한영스님과 함께 당대의 큰스님이셨죠. 일우스님은 참선은 집중적으로 시키지 않고 매일 조·석 예불 후 30분씩 참선하는 식으로 하고 자유롭게 정진하도록 했습니다.

원래 참선이란 좌선만이 전부가 아니기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앉아만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행주좌와 어묵동정(行住坐臥 語默動靜) 간에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4시간 생활이 참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 24시간 가운데 한 찰나도 참선을 여읠 때 고통이 엄습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되면 부처님께 원을 세우고 향을 꽂고 열심히 절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수도 있고 경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받은 화두는 조주(趙州, 778-897)스님의 '구자무불성(狗子無佛性)' 이었습니다.

중국 당 나라 때 어느 수좌가 조주스님에게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하자 조주스님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수좌가 다시 묻기를 "일체함령(一切含靈)이 모두 불성이 있다 했는데, 개는 어찌하여 없습니까" 하니, 조주스님이 답하기를 "그는 업식성(業識性)이 있기 때문이니라" 했어요. 이 때 또 다른 수좌가 묻기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이번에는 "있다"라고 대답한 것이 이 공안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화두를 받고 7-8년간을 정진했으나, 뚜렷한 소식이 없어 정혜사에 계시던 만공스님이 드셨다는 '만법귀일 일귀하처재(萬法歸一 一歸何處在)'를 화두로 잡았어요. 하지만 오래되지 않아 다시 '무'자 화두가 떠올라 평생 이것을 잡고 있습니다.

'무'자 화두와 함께 울력을 할 때는 '관세음보살'을 염했습니다. 염불이 입에 붙어 꿈에서도 부를 정도가 되었지요.

관세음보살 염불은 공부의 기초입니다. 〈화엄경〉의 '신시불모(信是佛母)'라는 말과 같이 불교신행에 들어가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염불을 한다는 것은 자비로운 생각으로 만든 염파(念波)를 끊임없이 내부와 외부로 방사해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아무런 형식도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입과 마음으로 부르기만 하면 되니, 이렇게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수행법은 없을 것입니다. 복잡한 사상체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귀의처가 될 수 있으니 근기가 낮은 말법시대에 적합한 방편이라 생각됩니다.

6.25동란 때 저는 비행기 폭탄 파편과 기관층에 중상을 입어 사흘동안 의식을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때 꿈에서 50대 전후의 퉁퉁한 여인이 나타나 몸을 만져보더니 "뼈는 안 다쳤으니, 곧 났겠군" 하더군요. 그 일이 있은 후 움직이지도 못하던 몸이 되살아나 한달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지요. 당시 꿈에서 본 흰 옷 입은 여인이 백의관세음보살이었다고 믿고 있어요.

결국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 도움을 주는 것은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도움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일심(一心)을 견지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 복은 저절로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이곳 감악산 범륜사 불사는 30년전에 맨 몸 하나로 시작했어요. 잘 아는 신도분의 따님이 이곳에 절터가 있는데, 참 좋다는 말을 듣고 직접 찾아 온 것이죠. 범륜사에서 40세에 주지로 임명된 뒤 16대부터 18대까지 주지 소임을 본 후 53세에 절터가 있던 이 산으로 왔어요.

천막을 치고 1년에 2백일 정도는 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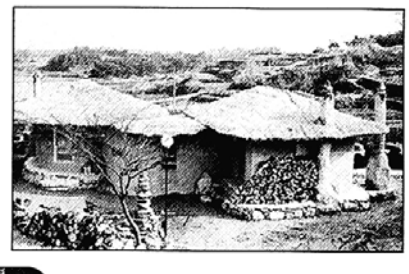
약력
- 1920년 경기 고양 生.
- 1930년 북한산 진관사에서 월현스님을 은사로 득도.
- 1938년 금강산 유점사 동국강원 대교과 수료
- 1960년 서울 백련사 주지
- 1965년 태고종 총무원 사회부장
- 1981년 적성 범륜사 주지
- 1998년 태고종 승정
- 現 백련사 조실, 범륜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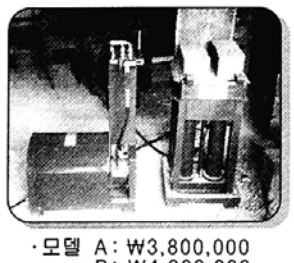
"초발심 잊지말고 사세요 그 마음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발심한만큼 성과 나와요"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 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 모델 A : ₩3,800,000
B :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 관련 전문 회사 황토 마을 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집 짓기교육 3月 중순이후 연중 月 2~3회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 화제의 신간 ·

불교성서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
THE LIFE AND HIS TEACHING OF BUDDHA GOTAMA SAKYA

中人 洪淳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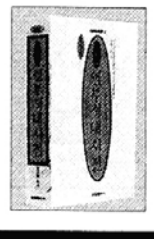
▪제 1 편 : 부처의 생애
▪제 2 편 : 부처의 가르침

불교의 창시자이신 석가모니 부처 (sakyamuni Buddh)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이며, 불교교단이 어떻게 형성되어 발전되었는가를 그의 생애의 기록을 통하여 생생히 이해할 수 있다.

· 부처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곧 진리의 말씀.
· 불교란 「삶의 바른길」의 실천을 통해 불교의 이상인 「열반」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

♣ 관음역서 ♣
◆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양장 신국판 정가 40,000
◆ 그림 당사주 대전 4×6배판 정가 25,000
◆ 사주학 핵심비결 양장 신국판 정가 25,000
◆ 고전 풍수학 설심부 양장 신국판 정가 25,000
◆ 혜서 명리진평 양장 신국판 정가 30,000
◆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정가 15,000
◆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정가 15,000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 김백만 편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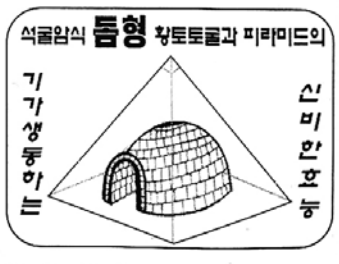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팔고 자식가정문제등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책을 펼쳐 보십시오.
A5 신/ 양장본 /40,00원

관음출판사 ☎ 921-8434, 929-3740 FAX 929-3470

황토 집(토굴)

생명의 친화성을 가진 흙중의 흙 - 황토!
황토 토굴은 오랫동안 한곳에서 정진하는 스님들에게 맑은 정신과 편안함을 주며 생체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황토 토굴은 바로 자연의 숨결을 직접 느낄수 있게 해주는 "생명의 물질"인 것입니다.



황토집(토굴)
원하시는 평수대로 ~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현장 방문 환영!! 황토집

우리 황토 토굴 사업부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상남동 1-5번지 대한상가 402호 연합건축사 내
TEL: 0551)282-7629 FAX: 0551)283-6531
H.P : 017)585-6045/ 017)566-9969/ 017)582-7116